

“익산, 생동하는 도시로 대변혁”

‘도지사 출마’ 김윤덕 의원,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푸드파크 조성 통한 식품산업 허브 등 지역 공약 제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전주 갑) 국회의원이 익산시를 찾아 “생동하는 도시 익산 만들기를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30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능을 뛰어넘는 도전적 행정과 정치로 제2의 익산 발전, 생동하는 익산의 대변혁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익산 발전 공약으로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푸드파크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허브 조성 ▲그린바이오 성장기반 확충 ▲백제천류 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을 통한 500만 관광객도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익산역 주변 원도심이 날로 쇠퇴하고 있다”며 “익산역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 전주, 군산, 김제 등을 아

우르는 철도 물류 중심지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익산역 주변 중앙동과 창안동 일대 원도심에 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국제 비즈니스 푸드파크 조성을 통해 식품 산업의 허브로 키워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또한, “익산의 농생명 산업과 연구 관련기관, 대학, 식품클러스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창업부터 실증, 사업화, 관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밖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품은 문화도시 익산에 백제천류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을 통해 500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30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능을 뛰어넘는 도전적 행정과 정치로 제2의 익산 발전, 생동하는 익산의 대변혁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했다.

김윤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익산은 역사문화, 철도를 비롯한 물류의 중심, 새인급 배후도시 등 성장가능성이 무

궁무진하다”며 “익산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이재명의 약속과 김윤덕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30일 원광대학교를 찾아 유니버시티 프로젝트 간담회를 열었다

“유니버-시티 프로젝트, 대학 소멸위기 극복 발판”

민주 안호영 의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재선, 완주·진안·무주·장수)이 30일 원광대학교를 찾아 대학·기업·지역이 공생할 수 있는 유니버-시티(Univer-City) 프로젝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떠나는 전북 청년들이 찾아오기 위해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정주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이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지역 혁신 성장 전략인 ‘유니버-시티 프로젝트’는 전북 소재 대학 소멸 위기 극복과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의 핵심 공약인 ‘유니버-시티 프로젝트’는 대학의 유희지를 신산업단지로 조성해 기업시설 및 창업지원시설, 주거 및 문화시설을 설치,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 하자는 것이다.

안 의원은 “유니버-시티를 통해 대학이 중심이 되는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생태

계 조성되길 희망한다”면서 “대학이 교육혁신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대학유휴부지 및 연구시설 등을 제공하고 행정은 대학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인허가 간소화와 세제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정 은 청년에게 임금의 일부와 거주할 주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청년은 주거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기업은 넓은 부지와 인센티브 확보, 대학은 지역의 중심 역할로서 소멸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도가 수도권과 같이 교육과 일자리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니버-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대학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입지적 장점과 혁신을 활용,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큰 흐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유니버-시티 프로젝트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 위기 극복과 전북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모든 후보에 비대면 선거운동 제안한다”

유성엽 도지사 예비후보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유성엽 예비후보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의 비대면 선거운동을 제안했다.

유 예비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스텔스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 상황하에 비대면 선거운동 할 것을 선언하고, 모든 후보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어 “도지사가 되겠다”고 출마한 후보자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개연성이 높은 대면식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하며 “저 자신부터 비대면 선거운동을 실천하고, 저의 정쟁이던 제안에 다른 후보



들께서도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하루빨리 펜데믹 사태가 종식돼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향후 개최되는 각종 대중 집회 행사 장 참여를 지양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의 행사를 개최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유 예비후보는 “보도자료, 사회적 관계통신망(SNS), 전화통화(후보자), 문자메시지 발송 등 철저한 비대면 선거운동 방식을 통해 정책과 공약, 비전을 민주당원과 도민에게 알릴 계획이다”며 “다만 정책·공약·비전 검증은 위한 기자회견, 방송토론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민생을 최우선으로”

양경숙 의원, 민주 원내부대표에 임명돼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부, 예산결산특위)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

지난 29일 박홍근 원내대표 등과 함께 현충원 참배에 이어, 첫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한 양경숙 의원은 “어렵고 매우 중요한 시기에 민생부대표로 원내대표단에 합류하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생과제를 최우선으로 살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화하고, 신뢰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부터는 제1야당이 되는 만큼, 원내부대표 인선에 경제능력과 전문성, 소용역량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입실 출신인 양경숙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민생경제 지킴이를 자임하며, 기재위, 예결위 등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민생경제, 재정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심본 발휘한 바 있다.

특히, 양경숙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사고지수당인 전주(을)지역 입실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호상 기자

“학생들의 후유증 회복지원금 지원”

김윤태 우석대 교수,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가고싶은 학교 조성·지역중심 평생교육
코로나19 회복 지원책 등 정책 전망 제시

김윤태 우석대 교수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30일 도교육청을 찾아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 예비후보는 “전북에서 초중고가 개학한지 3주만에 전체 학생 20만 8천명 중 4만 2천여 명이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돼 20%를 넘어섰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밀집 생활 해소, 임시교사 채용, 보직 교사 활용 방안 등의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장기 지속국면에서 아이들과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환경의 능동적 변화 중요성을 간파한 교육 섣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전북교육청 행정은 넓고 높은 시야에서 전체를 통찰하는 안목, 그리고 미래로부리의 교육행정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총괄 능력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윤태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회복 지원책, ▲가고 싶은 학교, ▲지역중심 평생교육 실현에 대한 정책 전망을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19 회복 지원은 초기 1년 동안 학생들의 후유증 회복지원금을 지원하고, 교직원들의 심리상담 비용 지급, 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다. 엄미같은 선생님들이 반기는 포근한 교육환경, 집합같은 학교급식



김윤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30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주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승규 공동선대본부장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다.

제공 점심시간 확대해 동리 등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주도의 수업설계를 통해 자발적 호미를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학습을 지원해 다양한 체험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기도 공동총괄본부장(전북대 명예교수, 콜롬비아 전 대사)과, 김승규 공동선대본부장(우석대 대학원장)이 참석했다. /장은성기자

“행복한 노후, 존엄있는 노후”

두세훈 완주군수 예비후보, 노인복지 공약 제시

완주군수 예비후보자인 두세훈(더불어민주당)가 “행복한 노후, 존엄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완주군 어르신 환경시대를 위한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두 번호사는 그간 깨끗한 정책선거로 가기 위해 가장 먼저 각 분야별 공약을 발표했으며, 8번째로 노인복지 핵심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핵심공약은 ▲어르신 1문화·체육활동 지원 ▲건강실천수당 지급, ▲홀로 어르신 아들·딸 맺기, ▲농촌형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어르신 간병 서비스 확대·간병 어르신 콜택시 지원 등이다.

두 번호사는 먼저,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1어르신 1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바람화판을 증·개축해 거점별 어르신의 만남과 종합적인 놀이 장소를 제공하고, 각 읍면별 파크골프장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두 번호사는 이어,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실천수당을 지급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 직원들과 1대 1 아들·딸 맺기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각 읍·면별 특성을 고려한 농촌형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사회적 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주말에도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간병 서비스 지원을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콜택시 서비스를 실시해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빠른 건강회복을 도와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두세훈 번호사는 “완주군은 66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4.4%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데다, 노인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 어떤 복지보다 노인복지가 중요하다”며 “완주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오수를 세계적인 애견테마공원으로”

한원수 입실군수 출마예정자 “의견 스토리를 XR로 구현”

한원수 입실군수 출마예정자(전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가 30일 오수의견비를 방문해 “오수를 세계적인 애견테마공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수는 고려시대부터 주인을 지킨 충직한 개 이야기로 유명한 고장이다.

현재 전국 최초로 ‘오수펫추모공원’이 들어서 있고, 의견공원이 조성돼 있어 반려동물 애호 인구가 오수를 찾고 있다. /유호상 기자



한원수 출마예정자는 “의견 설화를 문헌적으로 고증해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벌국 선생의 노력으로 오수 의견이 교과서 등에 실리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메타버스 시대에 오수 의견스토리를 XR(화상현실 기술)로 구현해 세계적인 스토리산업으로 발전시켜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의정활동을 통해 도비가 투입된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열지 못했던 오수의견제가 오는 5월에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라중 에코시티 이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 “이전비, 교육청 공모 등 통해 총당”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라중의 에코시티 이전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 예비후보는 30일 “신도시의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그 어떤 후보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최우선적으로 전라중 이전은 물론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부와 담판을 지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사에서 전라중 이전과 관련해 “전라중의 에코시티 이전은 불변의 상수다”라며 “전라중 이전 부지에 전주교육지원청을 짓겠다는 것은 행정중심 도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중합경기장 일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원형콘텐츠 체험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해 예정지로, 이와 연계할 경우 전라중 부지는 미래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미래교육캠퍼스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 예비후보는 “일부 학부

모든의 우려는 전라중 이전의 조건으로 전주교육지원청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96억원을 전라중 공사비로 투입해야 하는데 지원청을 매각하지 않으면 이전 계획이 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하지만 96억원을 굳이 교육지원청을 매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마다 70억원에 달하는 교육청의 불용 예산을 활용하거나 국가 공모사업 추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예비후보는 또 “교육청은 도시계획이 추진될 때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에코시티의 경우 내내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제 2중학교 설립 계획을 신청했지만 모두 재검토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교육지원청 매각과 연계시켜 전라중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교육청의 인일한 대처를 꼬집었다.

서 예비후보는 끝으로 “전라중을 에코시티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해 학생중심 교육을 펼쳐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은성기자